

## 뒤집기나 굳히기나...광주시장 선거 주말 대회전



시장에 핀 웃음꽃 6·4지방선거를 6일 앞둔 29일 광주 양동시장 찾은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사진 왼쪽)이 윤장현 광주시장 후보와 함께 상인들을 만나 지지를 부탁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ina@kwangju.co.kr



장애인들과 춤을 강운태 무소속 광주시장 후보가 29일 광주시 장애인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제1회 나, 나 누리 명랑운동회'에 참석해 장애인들과 율동을 함께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윤장현, 黨 원로 대거 광주로 "골든 크로스 시작됐다"**  
(지지를 역전)

**강운태, 이용섭과 동행 선거운동 "전략공천 심판하자"**

### Ⓢ 선택 6·4 지방선거 D-5

6·4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된 광주시장 선거운동이 종반부에 접어들면서 새정치연합 윤장현 후보와 무소속 강운태 후보는 지지세 확산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승부의 분수령이 될 사전투표일(30~31일)과 마지막 주말 유세전을 앞두고 두 후보 진영은 막바지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새정치연합, '용단폭격' = 윤 후보 측과 새정치연합은 선거 막판 승기를 잡기 위해 이번 주말 당 차원의 총공세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권노갑 상임고문과 임재정 전 국회의장, 이부영 전 의장, 김옥두·정상용 전 의원, 정근환 최고위원 등 당 원로들은 29일 광주로 대거 출동해 윤 후보 지원에 나섰고, 박지원 의원도 지원 유세에 참여했다. 31일에는 안철수 대표가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에서 윤 후보 지원에 나서는 등 중앙당 차원의 총공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안 대표의 이번 광주방문은 5·18 제34주년 기념식 이후 2주만에 세번째 방문이다. 이는 이번 주말과 휴일이 선거 막바지 전제적인 판세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당 차원의 '용단폭격'을 피부에 계획이다.

특히 강-이 단일화 이후 각종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격차가 10%포인트 이내로 좁혀짐에 따라 윤 후보 측은 첫 지지율 역전을 발판삼아 이번 주말과 휴일 막판 뒤집기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강 후보와 지지도 격차가 10% 포인트 내로 좁혀져 막판 대접전을 예고하고 특히 새정치연합 지지층의 절반가량이 윤 후보를 지지해 전략공천의 역풍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며 "금주 토요일과 일요일 집중적으로 지원유세를 벌여 돌아선 민심을 되돌리겠다"고 말했다.

▷강 측, 단일후보·인물론 앞세워 승기 굳히기 = 무소속 강운태 후보 측은 새정치연합의 '물량공세'에 맞서 안철수·김한길의 '전략공천(낙하산 공천)'을 심판하고 '단일후보·인물론'으로 승기를 굳히겠다

는 입장이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이 후보 지지자 일부가 강 후보 지지로 돌아섰고, 상당수 부동층도 강 후보를 지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용섭 후보가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적극적으로 강 후보와 '동행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강 후보 지지도 향상에 적잖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강 후보 측은 29일부터 선거일 전까지 매일 저녁 '야간 토크쇼 유세전'을 벌이고 부당한 낙하산 공천과 중단없는 광주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며 시민들을 상대로 막판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이 용섭 선대위원장도 연일 거리유세에 직접 나서며 강운태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강 후보는 사전투표를 앞둔 29일 호소문을 내고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오욕의 기록을 남길 것이냐, 아니면 민주정치 광주주의 자존심과 명예를 지킨 '소리없는 명예혁명'의 날로 기록될 것이냐"고 말했다.

▷양 측 지지세 확산 = 지난 28일과 29일에는 양 측 후보 지지 선언도 봇물을 이뤘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청년 활동가 200여명과 전국 시민사회대표 118명, 광주지역 문화예술인 800명 등이 윤장현 후보 지지를 선언했고, 5·18 국가유공자회 회원들과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노조 대표, 광주장애인종합연합회는 강운태 후보 지지를 하는 등 양측의 세 확산도 이어지고 있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이런 후보가 좋아요 ▶2·3면**  
**광주시장 2강 후보 탐구 ▶3면**  
**격전지를 가다**  
- 신안·영암·영광 ▶5면

## '관피아' 관련성 수사

〈관료+마피아〉  
장성 요양병원 참사 칼 빼든 광주지검... 사망자 전원 부검

### 경찰도 대대적 압수수색

검찰과 경찰이 29명의 사상자가 난 장성 효실천사랑나눔 요양병원(이하 효사랑병원) 방화 참사와 관련, 칼을 빼들었다.

광주지검의 경우 '관피아(관료 마피아) 적절 수사 과정에서 요양병원 참사를 들여다본다는 구상인데다, 경찰도 압수수색을 통해 방대한 자료 분석에 들어갔다.

전남지방경찰청은 29일 효사랑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근무일지·화재대응지침 등 소방관련 자료, 회계 관련 자료 등 서류 340여 종 10박스 분량과 컴퓨터 10대를 확보했다.

하지만 화재 사건 관련 여부 뿐 아니라 이번 기회에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요양병원의 실태와 연관지어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경·경 안팎의 분위기다. 여태껏 검·경 수사 당국에 적발됐던 상당수 요양병원 운영 과정의 문제점이 여기에도 존재하는지 들여다볼 것이라는 예이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유령 입원환자'를 만들어 의료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수익을 받아 챙기는 등 건강보험 부담청구로 적발된 요양병원들이 적지 않았다. 효사랑병원 뿐 아니라 광주·전남 요양병원의 의료 업계로 수사 확대 여부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업계와 공공기관 간의 유착 의혹 등 '관피아' 관련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전남경찰은 이날 방화 혐의로 체포된 김모(8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화재 사망자 전원의 시신을 부검, 질식사 외 다른 요인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조사 중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세월호 국정조사  
김기춘 증인 세운다  
여야, 국정계획서 의결



여야는 29일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 증인으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사진)을 포함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정조사 계획서에 합의했다. 이어 이날 밤 국정특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국정 계획서를 의결했다.

여야는 막판까지 정쟁이 됐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증인 포함 문제와 관련, 김 비서실장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는 대신 조사대상기관에 '청와대 비서실'이라고 적시하고 '기관의 장(長)이 보고한다'는 내용을 넣어 실질적으로 김 비서실장이 특위에 참석해 보고하도록 했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로부터 기관 보고를 받으면 당연히 김 비서실장도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일반 증인 대상이 되며 국정특위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만 있으면 증인으로 소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 비서실의 기관보고는 공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의 최종 책임자는 인사위원장이 김기춘 실장이다"고 지적했다.

/박지은기자 jkpark@kwangju.co.kr

▶ 탐구 476명 구조 172명  
실종 16명 사망 288명  
※ 세월호 참사 46일째  
29일 오후 8시 현재 ▶관련기사 7면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 상담교육원  
여성가족부 인정 2014년도 야간방학반  
"가정폭력 상담원" 모집  
2014년 6월 16일(월) 개강  
매주 월, 화, 목, 금 오후 6:00~  
문의 062)605-1112, 1063

새정치민주연합 남구청장후보자최영호후원회

언제나 주민편에 서겠습니다.

후 / 원 / 안 / 내

- 개인명의로만 후원할 수 있으며, 한도액은 500만원 까지입니다.
-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통하여 전액 환급 받을 수 있고, 초과한 금액분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깨끗한 정치문화 확립을 위해 소액후원을 환영합니다.
- 후원회에 가입하지 않아도 후원하실 수 있으며,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분께는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 문의전화, 062-602-0505

광주은행 125-107-346842  
예금주 남구청장후보자최영호후원회

한결같은 사람  
2 최영호

· 이 광고는 '정치자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것입니다. 법인 또는 단체, 공무원, 교사는 후원금을 기부 할 수 없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동구청장후보자 노희용후원회

문화로! 세계를!

후 / 원 / 안 / 내

- 개인명의로만 후원할 수 있으며, 한도액은 500만원 까지입니다.
-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통하여 전액 환급 받을 수 있고, 초과한 금액분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깨끗한 정치문화 확립을 위해 소액후원을 환영합니다.
- 후원회에 가입하지 않아도 후원하실 수 있으며,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분께는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 문의전화, 062-223-4274

광주은행 019-121-905443  
예금주 노희용(노희용후원회)

2 노희용  
현) 동구청장

· 이 광고는 '정치자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것입니다. 법인 또는 단체, 공무원, 교사는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